

##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바다의 의미와 대당전략\*

이 완 형\*\*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진성여대왕 거타지’조가 대당적 우위전략 차원에서 찬술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신성적 수호로서 나타나는데 호국호법용사상이 주는 언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용의 거처인 바다를 기제로 활용한 데서 보여진다. 이는 바다에 함의된 의미에서 확인된다. 첫째는 신라에는 호국호법용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중국과의 신위적 우위성을 드러낸다. 둘째는 다라니의 효험성 및 남용과 악용의 사례를 예시하고 그에 대응하지 않을 때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강한 경계를 내포하는 공간으로서 작용한다. 셋째는 당나라 황제까지도 칭송하는 거타지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신라에 많다는 사실을 피력함으로써 군사적 우월성을 나타낸다. 넷째는 용이 신위하는 바다를 통한 대당전략의 우수성을 확보함으로써 몽고에 대한 경계까지도 암시한다. 이를 통해 몽고의 침입으로 인한 초유의 위기의식과 절비의 잔혹성에서 벗어나려는 절대적 경각심과 절치의 방어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제어] 일연, 삼국유사, 거타지, 바다, 다라니, 대당전략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다라니의 기능과 對唐戰略 |
| II. 『삼국유사』와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바다 | IV. 맺음말            |

## I. 머리말

『三國遺事』는 각각의 조목과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상하는 조목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아울러 하나의 조목은 별개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친연적이며 유기적으로 전달하는 의미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틀 역시 일연선사의 의도에 의해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음도 사실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8199)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강사 / lwh8259@hanmail.net

다. 그러므로 해묵은 진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연구의 주안점과 전체 서사문맥의 연관성, 그리고 그 해석방법 등에 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삼국유사』 권2, 「紀異」 2, 「眞聖女大王 居陀知」조 역시 그러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 서사와 인물의 두 층위가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그 상징성을 배가시키는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甕好夫人과 魏弘 등 3~4명의 寵臣(이하 ‘위홍’ 등)과 ‘居陀知’의 두 인물 층위가 ‘권력 남용 경계’와 ‘민족적 우위, 해상 방어’라는 서사 층위와 중의적인 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 육지와 바다의 공간적 상징성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중의성이 내포된다. 그러므로 ‘위홍’ 등 서사와 ‘거타지’ 서사를 따로 떼어서 고찰하거나 어느 한 기사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하는 방법은 일관성을 잃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기사에 대한 논의는 거타지의 행위담에 초점을 맞춰 人身供養과 관련된 심청전 배경설화로 이해하거나<sup>1)</sup> 설화의 사상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 任項 설화, 作帝建 설화, 五百比丘因緣談의 전승에서 파악하거나,<sup>2)</sup> 항해설화<sup>3)</sup>에 더해 별자리와 관련된 창작담으로까지 인식되었다.<sup>4)</sup> 반면 조목을 전체 서사문맥에서 파악하는 경우는 진성여왕대의 정치 및 사회적 혼란상에 초점이 맞춰져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리하여 용을 민중, 사미를 지배자, 거타지를 민중의 영웅으로 이해하거나<sup>5)</sup> 불교적 관점에서 다라니신앙이 토착신앙의 형태로 변질·확산된 것으로,<sup>6)</sup> 또는 고려초 불교 교단의 국가 예측과 관련하여 俗權에 우위적 태도를 둔 불교 재편과 나아가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sup>7)</sup>

그런데 이럴 경우 왕거인을 王京人, 거타지를 地方人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두 인물의 불교적 입장을 해명해야 하는<sup>8)</sup> 과제가 풀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왕거인’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 역시 극복해야 한다. 기존의 많은 논의가 진성여왕대의 정치 및 사회상을 거론할 때 왕거인과의 관련담에 주목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왕거인의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시로써 하늘에 호소하는 방관자적 입장만을 취할 뿐 정치 및 사회의 혼란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라니를 본 왕과 권신들이 그를 투옥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될 뿐이어서다. 왕거인이 비방의 주체라는 확신도 정치세력에 반감을 둔 학자적 면모도 확연하지 않다. 『삼국사기』 역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위홍’ 등이 중심이 된 정사 문란사건은 다라니의 효험성을 극대화한 일연의 의도적 찬술임을 알 수 있다. 왕거인이 투옥된 뒤 억울함을 시를 지어 호소하자 하늘이 그 옥에 벼락을 쳐서 그를 놓아주었다는 언지는 그러한 다라니의 효험성을 극대화한 표증이라 하겠다. 이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국인의 다라니를 병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거타지’ 서

1) 柳玆善, 「沈清傳의 根源說話와 背景思想」, 『용봉논총』 11,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張德順, 「沈清傳 研究」,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93; 송화섭, 「『심청전』 인당수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2) 呂聖九, 「삼국유사 鵠島 居陀知 설화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試論」, 『한국학논총』 46, 한국학연구소, 2016, 71~114쪽.

3) 尹明岳, 「新羅下代の 海洋活動研究」, 『國史館論叢』 91, 國史編纂委員會, 2000, 227쪽.

4) 정연식, 「거타지 설화의 새로운 해석」, 『東方學志』 160, 국학연구원, 2012, 169~209쪽.

5) 박철완, 「거타지설화의 상징성 고찰」, 『청람어문학』 1, 청람어문학회, 1998, 243~260쪽.

6) 金淵敏, 「新羅 密敎思想史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14~115쪽.

7) 신선휘, 「『삼국유사』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해석의 새로운 시각」, 『불교연구』 51, 한국불교연구원, 2019, 203~233쪽.

8) 신선휘, 위의 논문, 2019, 206쪽.

사의 沙弥(老狐의 변신) 사건은 다라니의 적폐성을 적기하기 위한 기술로 보인다. 西海若(서해신, 서해룡)까지 다라니로 제어할 수 있었던 사미가 오히려 그로 인해 射死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기사는 하나의 서사문맥으로 이해해야 하며 하나의 주제와 연결된 유기적 구조로 파악해야 한다. 그것도 다라니라는 공통의 모티프를 핵심 기제로 하여 경계와 우위적 측면을 하나의 서사문맥으로 강조한 기사임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바다를 통한 해양 방어적 측면 또한 고려되었다는 점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진성여대왕 거타지’로 조목명을 편제하고 ‘거타지’ 서사에 비중을 더 얹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바다의 의미와 대당전략이 서사와 인물의 두 층위가 내포하는 상징적 맥락을 통해 경계와 우위라는 대칭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발제를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II. 『삼국유사』와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바다

### 1. 『삼국유사』의 바다 : 신이와 비범의 해결 공간

바다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이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인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적 입지가 그려함을 부추겼을 것이었다. 또한 바다가 국가 또는 지역 간 교통의 요로이자 교류의 통로로, 국가 영역의 경계이자 방어의 요지로, 해상문화의 발생지이자 형성지요 전파의 지류로, 삶의 생성 공간이자 활용 장소로서 육지 못지않게 중시되었으며, 그만큼 위험과 공포와 장애 요소로서 금기와 타부의 장으로 여겨져 왔으므로 그러한 인식이 깊어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국유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바다를 다양한 기제의 단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보인다.<sup>9)</sup> 그럼에도 『삼국유사』에서 바다가 하나의 조목이나 테마로 기재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바다가 획일적 가치성이나 분석적 장소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했겠지만, 당시 상황으로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만큼 적정한 수준을 찾기가 어려워서 일 것이다. 그렇지만 『삼국유사』에서 바다는 어느 문헌보다 다양한 자료적 가치는 물론 신이와 비범의 장소이자 해결 공간으로 작용해왔다. 그것은 몇 가지의 갈래로 기재되어 있는데 하나의 기제 단서로서의 바다가 어떻게 기사와 관련된 의미와 작용을 거치는지 또 서사적 의미를 구조화하는 데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결과로서 가능해진다.

9) 『三國遺事』의 바다를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논의는 김승호와 임태웅에게서 보인다. 앞의 논의는 『三國遺事』 소재 해양 설화를 불교적 사유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첫째 佛國土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경우, 둘째 중국, 인도 등 불교 선진국을 찾아 佛學에 매진하는 고승들의 역정, 혹은 귀환 중 용궁에 초청되어 그곳에서 겪은 신비 체험을 다채롭게 담고 있는 경우, 셋째 해중 異物들의 발원 및 적극적인 보시로 말미암아 지상에 사찰이 지어지는 과정을 전하는 경우로 나누었다(김승호, 「해양 공간의 설화적 수용과 의미 -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연구』 37, 한국문화연구소, 2009.). 하지만 『三國遺事』의 바다는 불교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제의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바다만 보더라도 불교적 사유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뒤의 논의는 「기이」편의 기사에 활용되는 바다를 통해 1) 신라와 관련한 신성한 존재의 이동 경로, 2) 신라를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 또는 그의 거처, 3) 비범한 인간이 신라를 위하는 면모를 드러내는 공간 등으로 이해하였다(임태웅, 「『삼국유사』 「기이」편과 바다」, 『동북아문화연구』 48,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16.). 그런데 「기이」편의 바다 역시 이 밖의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주를 뛰어넘는다.

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바다는 첫째 영웅과 이적, 둘째 출세와 이동, 셋째 퇴치와 수호, 넷째 건국(등국)과 등용, 다섯째 결연과 불연, 여섯째 유혹과 조짐 등의 공간과 장소로서 기능한다.<sup>10)</sup> 이는 『삼국유사』의 바다에 등장하는 신, 영물, 비범한 인물 등이 현세적 욕망이나 갈등, 내세적 염원을 해소하는 차원보다는 초월적인 세계를 더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면모가 읽힌다. 『삼국사기』의 바다가 신라의 경우 중국과의 교통 및 조공, 왜의 침입에 대한 대응과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백제의 경우 역시 陳, 梁, 宋, 魏, 齊, 北周, 隋, 唐 등의 나라에 조공한 기록이 대부분이고<sup>11)</sup>, 고구려의 경우는 국가 또는 왕의 덕을 바다에 비유해 겸칭하거나 漢, 隋, 唐 등의 고구려 침공, 사신의 피랍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삼국유사』에 활용된 바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세분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가. 神格의 進路(出世路): ‘第四 脫解王’조, ‘駕洛國記’조, ‘延鳥郎 細鳥女’조, ‘仙桃聖母隨喜佛事’조
- 나. 英雄豪傑의 登龍門: ‘奈勿王 金堤上’조, ‘眞聖女大王 居陀知’조
- 다. 靈應의 移動路: ‘皇龍寺丈六’조, ‘前後所藏舍利’조, ‘敏藏寺’조, ‘栢栗寺’조
- 라. 佛物의 異跡路: ‘金官城婆娑石塔’조, ‘五臺山文殊寺石塔記’조
- 마. 神龍의 造化場: ‘前後所藏舍利’조
- 바. 建國의 場所性: ‘馬韓’조, ‘東扶餘’조
- 사. 軍事 進出路: ‘太宗春秋公’조, ‘後百濟 甄萱’조, ‘寶藏奉老 普德移庵’조
- 아. 國亡의 兆朕: ‘太宗春秋公’조, ‘處容郎 望海寺’조, ‘後百濟 甄萱’조
- 자. 敵軍 退治路: ‘文武王 法敏’조
- 차. 國家守護: ‘文武王 法敏’조, ‘萬波息笛’조
- 카. 神物의 誘惑: ‘水路夫人’조
- 타. 佛道의 進路: ‘圓光西學’조, ‘寶壤梨木’조, ‘義相傳教’조, ‘眞表傳簡’조

가. 신격의 진로는 신명이나 신성이 이동하는 공간 기능을 의미한다. ‘제사 탈해왕’조는 탈해가 밝히고 있듯이 신이한 태생과 바다를 통해 신라에 이르는 과정이 그를 말해준다. ‘가락국기’조 역시 탈해의 신이한 태생과 바다를 통한 신라 진출에서 그러한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연오랑 세오녀’조는 신라의 정기인 ‘연오와 세오’가 일본으로 건너간다는 점에서 신격의 진로로 보인다. ‘선도성모수희불사’조는 중국의 황녀가 바다를 건너와 진한의 지선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성격을 찾을 수 있다.

10) 이와 같은 기능은 기사와의 관련성에 따라 해석과 관점과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오랑 세오녀’조 바다의 경우 신라의 정기가 일본으로 이동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격의 진로’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일본의 왕에 오른다는 점에서는 ‘등국’으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삼국유사』 바다의 기능과 위상과 존재 양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를 전승 설화 모티프로서의 바다와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한국고전문학과 바다의 관계를 좀더 밀접하게 파악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다. 다만 본고는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바다의 기능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삼국유사』의 바다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는 별도로 미루고자 한다.

11) 『三國史記』 소재 신라·백제의 바다에 대한 기록은 최재남, 「한국 고전문학과 바다에 대한 인식」,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10~15쪽 참조.

12) 같은 내용이라도 편목과 조목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둘 다 제시하였다.

나. 영웅호걸의 등용문은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거나 왕을 위한 영웅적인 업적을 드러내는 공간 기능이다. ‘내물왕 김제상’조는 제상이 바다를 통해 보해와 미해 두 왕자를 구출하는 활동에서 드러난다. ‘진성여대왕 거타지’조는 당 황제의 존송을 받는 거타지의 모습이 이를 보여준다.

다. 영웅의 이동로는 부처나 보살의 영묘한 감응 또는 부처의 사리 등이 이동하는 공간 기능이다. ‘황룡사 장육’조는 인도의 아육왕이 불상 주조에 실패하자 인연 있는 불국토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영웅이 감지된다. ‘전후소장사리’조는 부처의 어금니를 배에 실어 인연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에서 그러한 면이 읽힌다. ‘민장사’조와 ‘백률사’조는 신이승(관음보살의 화신)이 부레랑과 장춘을 데리고 오는 경로로 바다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경향이 파악된다.

라. 불물의 이적로는 불상, 당탑 등과 관련된 물건이 이적을 일으키는 공간 기능이다. ‘금관성파사석탑’조는 허왕후가 부왕의 명에 따라 파사석탑을 배에 싣고 오는 장면에서 그와 같은 기능이 읽힌다. ‘오대산문수사 석탑기’조는 문수사 석탑의 네 귀퉁이가 떨어진 까닭을 밝히는 과정에서 바다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면이 엿보인다.

마. 신룡의 조화장은 신룡이 조화를 부리는 장소로서의 공간 기능이다. ‘전후소장사리’조는 보요선사가 남 월에서 대장경을 구해 돌아올 때 신룡이 해풍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그와 같은 기능이 확인된다.

바. 건국의 장소성은 왕이 건국을 위해 이동하는 공간 기능이다. ‘마한’조는 準이 바다를 건너 마한을 건국하는 장면에서 그러한 점이 엿보인다. 이때 준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위만이 조선을 침략했기 때문이므로 여기에서 바다는 왕의 패망 경로와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동부여’조는 북부여의 대신 아란불의 꿈에 천제가 내려와 동해 바닷가에 도읍할 것을 권면하는 장면에서 그러한 점이 찾아진다.

사. 군사 진출로는 전쟁을 위해 군사가 이동하는 공간 기능이다. ‘태종춘추공’조와 ‘후백제 견훤’조는 소정방이 바다를 건너 백제를 치는 장면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 ‘보장봉로 보덕이암’조는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로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면을 볼 수 있다.

아. 국망의 조짐은 나라가 망할 것을 예조 하는 흥조나 계시로서의 공간 기능이다. ‘태종춘추공’조는 의자왕 5년 봄 2월에 서해바닷가에 작은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다 먹을 수 없었다는 흥조가 그러한 단서로 기능한다. ‘처용랑 망해사’조는 동해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에서 그러한 면모가 읽힌다. 龍=神의 개념은 『삼국유사』 곳곳에서 확인되므로 여기에서의 조화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신룡의 조화로도 볼 수 있으나 현강왕의 국망과 관련된 예조이므로 여기에 맞춘 것이다.<sup>13)</sup> ‘후백제 견훤’조는 견훤이 태조에게 항복하러 가는 이동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기능을 엿볼 수 있다.

자. 적군 퇴치로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치는 공간 기능이다. ‘문무왕 법민’조는 당나라 군사가 쳐들어오자 채색 비단으로 절을 지은 뒤 풀로 五方神像을 만들고 瑜伽明僧 12명으로 하여금 文豆婁祕法을 짓게 함으로써 당나라 군사의 배를 신라와 싸우기도 전에 수몰시키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능을 읽을 수 있다.

차. 국가수호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의식이 행해지거나 신이한 보물이 주어지는 공간 기능이다.

13) 현강왕의 국망 예조 차원에서 ‘처용랑 망해사’조를 살핀 논의는 이완형, 「處容郎 望海寺」조의 서사적 이해와 처용가의 기능, 『어문학』 68, 한국어문학회, 1999 참조.

‘문무왕 법민’조는 문무왕이 죽은 뒤에 호국대룡이 되어 나라를 수호코자 한 유조에 따라 동해의 큰 바위에 장사 지낸 것에서 그러한 기능이 찾아진다. ‘만파식적’조는 문무왕과 김유신이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려주는 장소로서 이 같은 기능이 보인다.

카. 신물의 유혹은 신물의 제략에 빠지거나 攪掠되는 공간 기능이다. ‘수로부인’조는 수로부인이 척축화에 매료(1차 신물의 남략)되고 해룡에게 납치(2차 신물의 남략)되는<sup>14)</sup>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능이 읽혀진다.

다. 불도의 진로는 불법을 체득하기 위해 중국이나 인도로 유학하는 공간 기능이다. ‘원광서학’조는 원광이 진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능이 보인다. ‘보양이목’조는 지식이 중국에서 불법을 전수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같은 공간이 읽힌다. ‘의상전교’조는 의상이 중국으로 건너가 구도하는 장면에서 그러한 점이 감지된다. ‘진표전간’조는 진표가 바다에서 물고기와 자라에게 불법을 강론하는 것에서 그러한 면이 찾아진다.

이 외에도 ‘靺鞨·渤海’조(말갈, 발해가 당의 登州 침범), ‘智哲老王’조(울릉도 오랑캐가 심해를 밧고 조공을 바치지 않음), ‘문무왕 법민’조(여자시체와 金仁問의 사망), ‘金傳大王’조(중국 朝聘), ‘南扶餘 前百濟 北扶餘’조(나라의 경계 및 도읍지), ‘가락국기’조(가락국의 경계 및 허왕후의 蒸棗와 蟠桃), ‘賢瑜珈海華嚴’조(法海의 신통력), ‘선도성모수희불사’조(바닷길 수호), ‘關東楓岳鉢淵藏石記’조(물고기와 자라의 육교 및 진표의 입해), ‘融天師 彗星歌 眞平王代’조(혜성가의 동쪽 바닷가) 등에서도 단편적으로 공간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밖에 ‘보장봉로 보덕이암’조와 ‘迦葉佛宴坐石’조의 찬사에서 바다가 상징적으로 원용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유사』에서 바다는 다양한 기능의 자료적 가치를 동반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료를 나열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유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 2.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바다 : 우위와 경계의 공간

『삼국유사』에서의 바다는 위에서 살펴본 텍스트 표면적 기능 외에 상징적 공간으로서도 기능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위와 방어라는 중의적 잣대로 표징 된다. 전자는 對唐·對倭의 전략적 차원에서 민족적 우위성 고양으로 기능하고, 후자는 적극적 방어 전략 기제로서 작용한다. 민족적 우위성 고양은 다시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으로 양분되는데 앞의 것은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귀비)로 등극하는 ‘연오랑 세오녀’조가, 뒤의 것은 용성국으로부터 신라에 이르러 역시 왕위에 오르는 ‘제사 탈해왕’조가 해당된다. 아울러 ‘수로부인’조는 신라미를 수로부인의 절대미로 표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우위성이 고취된다. 이는 ‘수로부인’조 전반부의 신물 남략사건(척축화에 매료)에서도 드러나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수로의 절대미에 용왕(해룡)까지 매료된다<sup>15)</sup>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의 남략사건이 海汀, 臨海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바다에 대한 함의가 정치하다. ‘가락국기’조 또한 수로왕과 가야국왕의 신이한 탄생과 왕위등극을 구체적으로 상술함으로써

14) 이에 대해서는 이완형, 앞의 논문, 1994 참조.

15) 이완형, 위의 논문, 1994 참조.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어 가야국 역시 천의에 의한 신성한 제국임을 피력하고 이 땅에도 중국에 못지않은 성군이 있었음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다만 여기에서의 바다는 허왕후가 수로왕을 만나러 오는 대목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신성결연의 매체로서 바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결연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는데 그 장소성으로 바다가 등장하는 것은 바다만이 가지는 신성성, 신이성, 생산성, 방향성 등을 기대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이다.

다음으로 적극적 방어 전략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는 예는 ‘문호왕 법민’조, ‘만파식적’조,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조에서 보인다. 먼저 ‘문호왕 법민’조와 ‘만파식적’조는 문무왕이 왜병을 막고자 스스로 호국룡이 되겠다고 유언하고 죽은 뒤 삼한을 지키기 위해 만파식적을 얻는 과정에서 대중·대왜에 대한 결연한 방어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바다는 적극적 방어 의지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조의 바다 역시 왜에 대한 적극적 방어 전략을 보여주면서 곧바로 왜병퇴치의 전략적 기제로 기능한다. 특히 이 조목은 부정의 언술적 방어 전략과 대응의 의도적 무시 전략이 동시등가적인 효과를<sup>16)</sup>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의도가 더 적극적이라 하겠다. ‘내물왕 김제상’조 역시 적극적 방어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제상의 일본왕에 대한 거침없는 항거와 강건한 충의를 통해 왜에 대한 절치의 적개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도가 읽힌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몽고의 徵用的 일본원정에 앞서 麗蒙聯合軍의 진영에 참가하게 된 일연선사의 대일본 항쟁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언술전략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유다르다.

두 번째, 정치적 경계 및 국망 예조로서의 바다는 ‘처용랑 망해사’조에서 보인다. 이는 현강왕의 행유를 따라 반복적으로 제시 되는 신들의 경계를 통해서 읽히는데 동해신(동해룡), 남산신, 북악신, 지신 등 네 방의 신들이 신라가 장차 망할 것을 순차적으로 예조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볼 때, 〈처용가〉는 처용이 탐라에 빠진 신라를 경계하기 위하여 역신을 통해 더 이상 빠지지 말 것을 제시하는 노래로 볼 수 있다.<sup>17)</sup>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그 첫 계시의 공간이자, ‘처용랑 망해사’조의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세 번째, 神聖的 수호로서의 대당전략은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에서 읽힌다. 그것은 ‘거타지’ 서사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여기에서는 호국호법룡사상이 주는 언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용의 거처인 바다를 주시한다. 바다에 함의된 의미는 다음의 네 가지 요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신라에는 호국호법용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중국과의 신위적 우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공간적 기능이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서해약은 용으로서 서해신이다. 서해를 수호해야 하는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호국호법용인 것이다. 그런 용신의 부재는 곧 서해가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존재 자체가 국가의 신위이자 해상 방어로서의 안위이다. 둘째, 다라니에 대한 적폐성과 그에 대응하지 않을 때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강한 경계를 내포하는 공간적 기능이다. 일연선사는 이미 다라니의 효험과 적폐에 대해 알고 있었다. 다라니와 밀교를 「기이」와 「신주」로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에서 이는 확인된다. 용에 대한 두 시선 즉, ‘거타지’ 서사의 용을 서해

16) 이에 대해서는 이완형, 「〈혜성가〉와 적극적 방어로서의 언술 전략」, 『東洋學』 6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6 참조.

17) 이에 대해서는 이완형, 앞의 논문, 1999 참조.

신으로 존송한 반면, ‘해통항룡’조의 용을 독룡(교룡, 악룡)으로 비하하고 있어서다. 그것은 국가 수호와 해상 방어 차원에서 서해신은 지켜져야 한다는 결의로서의 의도적 찬술과 맞물린다. 서해를 수호해야 할 용신이 사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국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연한 경계가 읽히는 이유다. 셋째, 당나라 황제 까지도 칭송하는 거타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신라에 많다는 사실을 피력함으로써 군사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공간적 기능이다. 작제전 설화와 달리 ‘거타지’ 서사의 경우 거타지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정보 없다.<sup>18)</sup> 그가 신공이라든가, 영웅적 면모를 지녔다든가, 신이한 출생이라든가 하는 등의 단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해약의 조화로 궁수 50인 중에서 선택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서해약의 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고, 그로 인해 용녀를 얻음과 동시에 당나라 황제의 존송까지 받는다. 이는 결국 거타지와 같은 뛰어난 인물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당적 차원에서 신라의 군사적 우위까지도 선양하려는 의도임이 짐작된다. 넷째, 바다를 통한 대당전략의 우수성을 확보함으로써 몽고에 대한 경계까지도 암시하는 공간적 기능이다. 이는 옛것을 기억시킴으로써 현실을 치유하려는 일연선사의 『삼국유사』 찬술과도 연계되면서 앞의 세 항목에서 피력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려는 의도와 맞물린다.

일연선사는 이러한 예시들과 바다라는 기제를 통해 몽고의 침입으로 인한 초유의 위기의식과 절비의 잔혹성에서 벗어나려는 절대적 경각심과 절치의 방어의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몽고전란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내면화된 소산물이 『삼국유사』라는 점을<sup>19)</sup> 감안한다면 그러한 의식은 깊어진다.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거타지’ 서사 역시 핵심모티프이자 기제로서 바다의 공간성과 장소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의도와 부합한다. 이 조목이 ‘진성여대왕 거타지’조로 명기된 점 또한 그러한 취지를 드러낸다. 이에 대해서는 신성적 수호로서의 대당전략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가가려 한다.

### Ⅲ. 다라니의 기능과 對唐戰略

#### 1. 다라니의 의미와 기능

‘진성여대왕 거타지’조는 층위가 다른 두 서사가 기재되어 전한다. 짜임과 틀, 사건과 인물, 시점과 시간, 환경과 배경, 진술 방식과 통사적 표현 등에서 층위를 달리하고 있어 마치 전혀 다른 두 내용이 한 조목에 병기되어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찬자의 텍스트 생산 의도와 텍스트 해독 단서, 독자의 비판적 텍스트 이해와 다양한 텍스트 평가가 인지된 상황에서 접근할 때 이 조목에 대한 의사소통은 달라진다. 즉, 표면적 의미 체계와 숨겨진 의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과 거리는 좁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18) 이는 작제전 설화가 거타지 설화 부분만을 추려내어 재구성되었다(정연식, 「작제전 설화의 새로운 해석」, 『한국사연구』 158, 한국사연구회, 2012, 61쪽 참조)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19) 윤용혁, 「몽골전란과 『삼국유사』의 일연 - 『삼국유사』를 통해서 본 몽골전란 -」, 『한국중세사연구』 69, 한국중세사학회, 2022 참조.

과정에서 찬자는 독자에게 텍스트 이해에 꼭 필요한 행위 원형과 구조화 원형을 가능하다면 사전 신호로써 분명히<sup>20)</sup> 해주어야 한다. 이는 필자 자신이 표현한 텍스트 표면적인 장치들에 의해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의도들이 독자의 추론에 의해 해석될 수 있도록 가능한 단서들을 제시<sup>21)</sup>해주기 때문이다.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서사와 인물에 대한 층위 역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되는 이유다.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두 서사와 인물 층위를 한 조목에 병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목명에 거타지만을 지목해 기재한 까닭은 또 무엇인가.’ 다라니는 그러한 점에서 분명한 신호로써의 단서다. 다라니가 이 조목의 공통모티프이자 핵심 기제로서 그 상징성을 배가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성여대왕 거타지’조는 크게 두 개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사 농단에 관련된 ‘위홍’ 등 서사와 민족적 우위 선양과 해양 방어를 고취하는 ‘거타지’ 서사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전 신호로써 다라니가 공통모티프이자 핵심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위홍’ 등과 ‘거타지’로 대변되는 두 인물 층위가 ‘권력 남용, 왕권 위기’의 정치적 경계와 ‘민족적 우위, 해상 방어’의 대당전략으로 상징되는 두 서사 층위와 중의적인 의미망을 형성한다. 그것은 또 육지와 바다의 공간적 상징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의성이 내포된다. ‘위홍’ 등으로 대변되는 권력 남용이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정사 문란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면, ‘거타지’로 대변되는 민족적 우위와 해상 방어는 바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전 신호로 다라니가 제시된다. 즉, 다라니는 ‘위홍’ 등 서사와 ‘거타지’ 서사에 공통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는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사구조는 『삼국유사』에서 자주 목도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수로부인’조이다. ‘수로부인’조 서사의 경우 현화가 배경기사와 해가 배경기사 그리고 수로의 姿容絶代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서사의 공통모티프이자 핵심 기제로 수로의 자용절대가 작용하고 있어서이다.<sup>22)</sup> 이와 마찬가지로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서사 역시 그러한 반복적 기능이 그대로 보여진다. 다만 ‘수로부인’조의 경우 수로의 자용절대로 인한 남략사건이 순차적 순행구조에 의해 해결되는 반면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경우는 다라니가 ‘위홍’ 등과 ‘거타지’ 서사에서 사건의 단서이자 기제로 작용은 하지만 해결은 전혀 상반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즉, ‘위홍’ 등 서사에서는 국인의 다라니로 인해 왕거인 투옥 사건이 발생하고 천의에 의한 방면으로 해결되는 데 반해 ‘거타지’ 서사의 경우는 사미의 다라니로 인해 서해약의 자손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거타지에 의해 오히려 사미가 射死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반된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때 국정농단을 경계하는 ‘위홍’ 등의 정사 문란사건은 신라하대의 정치상황을 반영한다. 진성여왕은 즉위 초기에는 경문왕과 헌강왕의 百高坐會, 渡唐 유학생 활용 등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전국적인 조세감면을 통해 정국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진성여왕 3년(889) 원종과 애노의 난을 계기로 지배체제가 무력화되고, 잦은 천재지변, 지나친 불교장려, 과도한 음행, 후삼국 출현 등이 겹치면

20) 이는 W. Heinemann & D. Viehweger(1991)가 제시한 글말 의사소통 과정의 상호작용전략 중 하나이다(김혜정, 「텍스트 이해에서 의미 구성의 층위와 인지의 상호 작용」,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002, 4쪽에서 재인용).

21) 김혜정, 위의 논문, 2002, 4쪽.

22) 이에 대해서는 이완형, 앞의 논문, 1994 참조.

서 결국 멸망기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 가운데 더욱 극심해진 권력 남용은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견디지 못한 국민이 다라니를 지어 길에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선덕왕대(632~647)에 수용되면서 문무왕대(661~681) 자리 잡게 된 다라니 신앙이 민간에까지 널리 퍼진 양상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그 효험성을 입증하는 예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시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왕거인’사건이다. 기존의 많은 논의가 진성여왕대의 사회상에 대해 왕거인과 관련된담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거인의 경우 텍스트 의미를 재구성하는, 또는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해석자가 읽힐 수 있다. 왕거인이 다라니를 거리에 던지는 저항적 태도나 왕에게 세태를 직간하는 충의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다. 다만 자신의 억울함을 시로써 하늘에 호소하는 방관자적 입장만을 취할 뿐이다(居仁作詩訴于天). ‘위홍’ 등 서사의 표층적 의미 구조가 이를 말해준다. 다라니를 본 왕과 권신들이 “이것은 왕거인이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지었겠느냐(此非王居仁 誰作此文)?”고 반문하면서 그를 투옥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될 뿐이라는 것이다. ‘위홍’ 등 서사 말미의 다라니 부기는 그에 대한 표증인 셈이다.<sup>23)</sup> 만약 그것이 왕거인의 다라니였다면 찬자는 그의 옥중시를 부기한 것처럼 어떠한 단서라도 남겼을 것이다. 『삼국사기』 역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때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당시의 정치를 거짓으로 비방하는 글을 지어 조정의 길목에 붙여 놓았다. 왕이 사람을 시켜 찾아내게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어떤 자가 왕에게 고하기를, ‘이는 필시 문인 가운데 뜻을 이루지 못한 자의 소행일 것입니다. 아마도 대야주에 은거하고 있는 거인이 아닐까 합니다.’”<sup>24)</sup>라는 언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거인이 비방의 주체라는 확신도 정치세력에 반감을 둔 학자적 면모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재된 왕거인(『삼국사기』는 거인)의 옥중시는 그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삼국유사』의 왕거인 시에서는 燕丹과 鄒衍이, 『삼국사기』 거인의 시에서는 于公과 鄒衍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징적 단서로 인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연단과 우공, 그리고 추연의 시적 이미지는 정사 문란과 분명한 거리가 있다. 연나라 단은 전국시대의 정치상황에서 비참하게 희생된 왕자이고, 추연<sup>25)</sup>은 연나라 혜왕 때 참소를 당해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인물이다. 그리고 우공<sup>26)</sup>은 生祠에 봉해질 정도로 獄事에 공정해 孝婦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관리다. 그러므로 이들에게서 정사 문란의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곧 텍스트 창작 주체(왕거인의 누명)와 시의 표층적 의미(억울함 표명) 사이에 이질적인 거리감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다라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목된 것이 왕거인이고, 그에 대한 항변 차원에서 옥

23) 『三國遺事』 권2 「紀異」 2, ‘眞聖女大王 居陀知’조, “陀羅尼曰,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 蘇判尼, 于干三阿干, 梟伊婆婆訶, 說者云, 刹尼那帝者言女主也, 判尼判尼蘇判尼者言二蘇判也, 蘇判爵名, 于干三阿十也, 梟伊者言梟好也.”

24)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11, ‘眞聖王’ 888년, “時有無名子, 欺謗時政, 構辭榜於朝路, 王命人搜索, 不能得, 或告王曰, 此必文人不得志者所爲, 殆是大耶州隱者巨仁耶.”

25) 鄒衍(기원전 302~240)은 中國 戰國時代 齊나라 臨淄 사람으로 陰陽家의 대표적 인물이다. 당시 추연은 燕나라, 魏나라, 趙나라 등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학설을 주장하였는데 연의 昭王은 碣石宮까지 지어주면서 그를 존경하며 스승으로 모셨다. 그러나 소왕의 아들 惠王이 즉위하자 추연을 모함한 讒訴를 믿고 추연을 투옥하였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추연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을 하자 5월의 여름이었는데도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

26) 중국 漢나라 東海郡 郿縣 사람이다. 縣의 獄史와 郡의 決曹을 지내면서 그가 적용한 죄목과 형벌에 대해 불만과 원망을 가진 자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獄事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生祠가 세워지기까지 하였다.

중시가 창작되었다는 것이 ‘위홍’ 등 서사의 표층적 의미 구조인 것이다. 왕거인이 옥중시를 지어 호소하자 하늘이 그 옥에 벼락을 쳐서 그를 놓아주었다는 언술에서 그러한 의미가 뚜렷해진다.

그러므로 ‘위홍’ 등 서사의 정사 문란사건은 다라니의 효험성을 극대화하려는 일연의 의도적 찬술임을 알 수 있다. 국민에 의해 길에 투척된 다라니를 당대의 문인인 왕거인 외에 다른 사람을 거론할 수 없다는 단언에서 그러한 의도가 일한다는 것이다(此非王居仁 誰作此文). 찬자는 이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 다라니를 병기하고 그 해석까지도 첨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다라니는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sup>27)</sup>에서 제왕의 본분을 설한 내용과 유사한 성격의 변이된 眞言陀羅尼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다라니를 陀羅尼 隱語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서 그러한 점이 확인된다.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이상적인 帝王像인 轉輪聖王의 이념<sup>28)</sup>을 설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진성여왕의 실정과 ‘위홍’ 등의 정사 문란에 시달린 국민들이 正法 統治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진언다라니를 거리에 던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사이다.

‘거타지’ 서사에서도 다라니는 공통모티프이자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다라니는 거타지가 곡도에 남게 되는 발단의 단서로써 제시될 뿐만 아니라 사미로 둔갑한 여우를 射死 하는 문제해결의 기제로도 활용되고 있어서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는 ‘거타지’ 서사의 다라니는 불교적 다라니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라 설화에서 여우는 토착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서해약을 괴롭히는 늑은 여우가 사미의 모습으로 다라니를 외며 주술을 부리는 것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토착신앙의 존재가 불교적 다라니로 꾸며졌다는 것이다. 즉, 다라니 은어가 실제 다라니일리 없듯이 사미의 다라니 역시 진짜 불교의 다라니가 아니라는 것이다.<sup>29)</sup> 사미의 다라니가 불교적 다라니였다면 밀교와 관련해서 「신주」편에 편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은 다라니의 악용을 엄중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라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라니는 본래 뜻이 까다롭고 내용이 난해해서 그 자체로 해설조차 쉽지 않은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오직 부처만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대개 글 뜻이 오묘하고 말이 신비하다. 신비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오묘하기 때문에 해설할 수 없는 것이니, 해설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더욱 공경하고 알 수 없으면 사람들이 더욱 존송하게 된다. 존송이 지극하고 공경이 돈독하면 사람들에게 감명됨이 반드시 깊으며 靈異한 일이 또한 많을 것이다.”<sup>30)</sup>라는 李齊賢의 지적은 다라니의 신령하고 심오한 경지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眞言, 神呪, 明呪와도 구분되는 의미로 이해되어왔다.<sup>31)</sup> 경전을 憶持·執持해야 하는 수행자의 위치에서 다라니는 이들

27) “復次文殊，我滅度後，濁惡世時，若有國王，殺父害母，誅斬六親，不依王法，廣興甲兵，侵討他國，忠諫之臣，枉遭刑戮，淫欲熾盛，違先王法，破塔壞寺，焚燒經像，水旱不調，因王無道，國界飢饉，疾疫死亡，如是國王，現世短命，死入地獄，墮大阿鼻，若能書寫是經流通供養，至誠懺悔，依善王法，即得長命。”라고 하여 이상적인 제왕상을 설파하고 있다(『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28) 남희숙, 「조선후기 王室의 佛教信仰과 佛書刊行」, 『國史館論叢』 99, 國史編纂委員會, 2002, 54쪽.

29) 김연민, 앞의 논문, 2017, 115~116쪽 참조.

30) 李齊賢, 『益齋亂藁』 권5, 金書密教大藏序, “蓋其義奧, 其辭秘, 祕故不可聞, 奧故不可解, 不可解則人敬之篤, 不可聞則人尊之至, 尊之至敬之篤, 其感於人也必深矣, 靈異之跡, 亦宜乎多也.”

31) 선상균, 「다라니 의미의 체계화 과정」, 『밀교세계』 1, 위덕대학교, 2006, 43쪽 참조.

에 앞서 중요한 기능이자 방법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어떻게 하면 경전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聞持’의 차원에서 다라니는 그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다라니가 일체의 불법을 總持하는 역할로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다라니는 그 후로도 의미의 확대와 수용의 폭을 넓혀 佛智와 경전을 뜻하는 범위에 在俗의 呪句를 칭하는 개념까지 혼재되면서 변이와 보급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불교적 내용의 다라니가 불, 보살의 설을 담은 類義語로 조직된 데 반해, 諸天과 諸神들이 설하는 呪句다라니의 경우 隱密語, 無義語가 대부분이어서 목적과 수단이 포함된 다양하고도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大乘經典 내에서 다라니를 무수히 설하게 되고 神呪, 明呪, 呪, 密呪 등의 술어와도 혼용되는 계기로 이어졌다.<sup>32)</sup> 특히 신주, 밀주와의 관계는 신라와 『삼국유사』의 다라니를 읽어내는데 중요한 기제가 된다. 신라의 밀교 역시 다라니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三密의 수행법 중 口密이 다라니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즉, 口密은 眞言, 身密은 印契, 意密은 觀法을 이르는데 진언이 곧 다라니여서다. 그리고 8세기 이전의 밀교경전 대부분이 다라니 경전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확인시켜준다. 『삼국유사』 「신주」편 또한 신라 밀교와 다라니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삼국유사』의 「신주」편이 그 어느 사료에도 없는 독특한 편제라는 점 외에도 밀교를 내용으로 하는 ‘密本摧邪’, ‘惠通降龍’, ‘明朗神印’ 세 조목이 기재되어 있어서다. 그중 ‘혜통향룡’조는 다라니가 신라의 본격적인 밀교로 자리 잡게 되는 단서를 가지고 있다. 無畏三藏이 火盆으로 갈라진 혜통의 정수리를 신주로 瘡合하는 장면<sup>33)</sup>에서 비밀을 전수하는 師資相承이 엿보이기 때문이다.<sup>34)</sup> 혜통이 무외삼장을 대신하여 唐室 공주를 疾瘳하는 과정과 신라에 돌아와 그를 잡으러 온 甲兵을 신통력으로 물리치는 장면, 신문왕의 등창을 주문으로 治癒하는 모습 등은 그러한 단서를 구체적으로 확증시켜준다.<sup>35)</sup> 그리고 그러한 추론이 가능한 사료적 단서는 혜통의 신주가 ‘尊勝陀羅尼’라는 점이다.<sup>36)</sup> 이로써 본다면 신라에서 다라니가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는 혜통으로부터이고, 진성여왕 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민중에게까지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홍’ 등 서사에서 보이는 다라니 은어가 이를 말해준다. 다라니 은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진언다라니의 한 양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삼국유사』에서 다라니가 언급된 조목은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조, ‘臺山五萬眞身’조가 전부다.<sup>37)</sup> 밀교 또한 「신주」편에 세 조목 만이 전할 뿐이다. 그렇다면 다라니와 밀교의 접근성이 분명한데도 이같이 「기이」와 「탐상」, 「신주」로 나누어 기사를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라니의 순응과 역기능을 보여주는 예에서 찾아진다. 즉, 다라니를 그릇 이해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진성여왕의 실정을 경계하고(‘위홍’ 등 서사의 국

32) 선상균, 위의 논문, 2006, 50~51쪽 참조.

33) 『三國遺事』 권5, 「神呪」 6, ‘惠通降龍’조, “有瑕如王字文因号王和尚, 深器之傳印訣.”

34) 김연민은 無畏三藏이 惠通의 法器를 인정하고 印訣을 전수하는 과정을 밀교의 師資相承으로 파악하여 주목된다(「惠通의 활동과 密敎思想」, 『新羅史學報』 31, 新羅史學會, 2014, 102~105쪽 참조).

35) 『三國遺事』 권5, 「神呪」 6, ‘惠通降龍’조.

36) 김연민, 위의 논문, 2014, 115~116쪽 참조.

37)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조와 ‘臺山五萬眞身’조의 다라니는 구도 수행 중에 언급된 것이므로 「탐상」편에 편제된 것으로 보인다.

인 다라니 은어) 악용을 경고하기 위한(‘거타지’ 서사의 사미 다라니) 예시라는 것이다. 이는 ‘해통항릉’조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통항릉’조의 경우 불교적 다라니의 예시이므로 그 정통성이 인정되어 신승들의 이적을 기재한 「신주」편에 수록한 반면,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경우는 왕과의 관련성에서 「기이」편에 편제됨과 동시에 다라니의 남용과 악용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이」편에 수록하였다는 것이다.

다라니 남용의 예는 ‘위홍’ 등 서사에서 보여진다. 국인의 다라니 은어 投路로 인해 왕거인이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왕거인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라니 은어와 직접적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국인의 다라니 은어 투로가 그의 학식과 도량으로 빚어진 사건이었다면 찬자는 그에 대해 어떤 언지나 단서라도 남겼을 것이다.<sup>38)</sup> 이러한 예가 『삼국유사』에서 자주 목도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경덕왕의 무리한 왕권강화와 득남요구에서 찾아진다. 경덕왕의 治理와 관련된 기사가 편과 조목을 달리하여 전해지고 있어서다. 즉, 무렬왕계를 고수하려는 경덕왕의 무리한 전제왕권 강화와 이의 계승을 위한 친의를 역행하는 왕세자 요구로 인해 결국 왕위 단절이라는 극한 상황에 빠지는 일련의 사건이 ‘景德王 忠談師 表訓 大德’조와 ‘月明師 兜率歌’조에 분리 기재되고 있다는 것이다.<sup>39)</sup> 동일한 조목에서도 사건의 추이에 따라 언지나 단서를 남긴 예는 ‘처용랑 망해사’조에서 보인다. 현강왕의 탐락에 따른 국망의 조짐을 왕의 행유와 관련해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다.<sup>40)</sup> 『삼국유사』 찬자는 이처럼 사건에 대한 경중, 관련자의 신분과 지위, 접근방식과 처리, 선악의 인과와 감응 여부 등에 따라 편과 조를 달리하여 언지나 단서를 수록하고 있다. ‘위홍’ 등과 ‘거타지’ 서사에서 보여지는 다라니의 경우도 이와 같은 취지의 기재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타지’조의 다라니는 악용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미가 다라니를 외우면서 서해약의 자손을 해치기 때문이다. 사미 또한 늙은 여우의 변신인 영물이므로 적통 승려가 아니다. 釋尊은 이러한 다라니의 폐단을 豫知하고 그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다른 沙門 婆羅門들은 남이 施主한 것을 먹으면서 도에 방해되는 법을 행하고 사된 방법으로 생활한다. 혹은 사람을 위해 병을 치료하는 呪文을 외우기도 하고, 혹은 나쁜 呪文을 외우기도 하며, 혹은 선한 呪文을 외우기도 한다. 혹은 醫方·침·뜸·藥石으로써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기도 한다. 그러나 沙門 瞿曇은 그러한 일이 없다.<sup>41)</sup>

위는 석존의 敎說을 모아놓은 『長阿含經』 권14 『梵動經』 권2의 내용 중 일부이다. 여기서 보면 다라니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呪文 행위의 일체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석존 在世 당시에도 이미 주술이 널리 보편화되었다는 반증도 되는 셈이다. 그 폐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석존이 재세 기간에 이 같은 교설을 내렸을

38) 국인의 다라니 은어가 왕거인의 소작이라면 찬자는 ‘거타지’ 서사와 같은(사미의 射死) 해결 방법(정치적인)을 기재했을 것이다.

39) 이에 대해서는 이완형, 앞의 논문, 1994 참조.

40) 이에 대해서는 이완형, 앞의 논문, 1999 참조.

41) 『佛說長阿含經』 권14 『梵動經』 권2, “如餘沙門, 婆羅門食他信施, 行遮道法, 邪命自活, 或爲人呪病, 或誦惡呪, 或誦善呪, 或爲醫方, 鍼灸, 藥石, 療治衆病, 沙門瞿曇無如此事.”

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誦惡呪’로 道를 방해하는 행위다. 여기서의 惡呪가 사미의 다라니와 같은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주고 손을 모으고 日月을 향하는 등 온갖 고행을 하는 것으로써 利養을 구한다.”<sup>42)</sup>는 석존의 교설을 통해서도 구체화된다. 이 역시 사미의 행태와 유사성을 보여서다. 그러므로 ‘거타지’ 서사의 사미 다라니는 그 악용의 폐해를 지적하고 경계하는 단서로 적기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라하대에 이미 다라니가 확대 보급되면서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변이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묘 신비하던 다라니의 본질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반증이다. 국인의 다라니 이용과 왕, 권신들의 다라니 판독, 나아가 老狐 같은 영물의 다라니 활용에서 그러한 정황이 입증된다. 그렇다 보니 그 악용 폐해 또한 심각했을 것이다.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의 조목으로 설정하면서까지 경계했을까. 그것도 왕과 관련지어 「기이」편에 등재했을까. 그 폐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일연선사의 고뇌가 엿보인다. 진성여왕대의 사회적 불만으로 배태된 다라니의 남용과 악용을 인지 시킴으로써 무신정권, 몽고침탈의 불안 심리가 만연시킨 변질된 다라니를 경계하기 위해 편과 조목을 달리하면서까지 『삼국유사』에 수록했던 것이다. ‘위홍’ 등 서사의 다라니 은어와 ‘거타지’ 서사의 다라니가 주는 의미가 그만큼 심각한 이유라 하겠다.

## 2. 신성적 수호로서의 대당전략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에서 대당전략이 읽히는 부분은 ‘거타지’ 서사이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확인되는 데 그 하나는 당나라 황제의 태도에서 보인다. 진성여왕 당시 당과의 정치적 상황이 해상통로마저도 쉽지 않았던 정황에서 본다면 그 시사점이 유달라서이다. 이는 최치원의 表文에서도 입증된다.<sup>43)</sup> 그런 점으로 볼 때 당나라 황제가 거타지를 신하들의 윗자리에 좌정케 하고 금과 비단으로 후사하였음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요인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거타지’ 서사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良貝가 아니다. ‘진성여대왕 거타지’의 조목명이 시사하는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조목의 주동 인물은 거타지다. 그런데 주동 인물이 거타지라 하더라도 그가 진성여왕의 아들을 수행한다든가, 용력과 기량이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든가, 신궁의 재능을 지녔다든가 하는 대목에 집중되지 않는다.<sup>44)</sup> 거타지가 곡도에 남게 되는 연유가 서해약 곧 서해신의 조화에서 비롯되고, 그 연장선에서 사미를 射死케한 공로로 용의 시위를 받으며 당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이다. “두 용을 시켜 거타지를 받들고 사신의 배를 따라가서 그 배를 호위하여 당나라 지경에 들어가게 했다.”<sup>45)</sup>는 그에 대한 표증이다. “당나라 사람들이

42) 『佛說長阿含經』 권14 『梵動經』 권2, “現諸技術, 叉手向日月, 作諸苦行以求利養.” 이런 행태는 『高麗史』의 作帝建 기사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高麗史』 卷首, 高麗世系, “我是西海龍王, 每日晡, 有老狐作熾盛光如來像, 從空而下, 羅列日月星辰於雲霧間, 吹螺擊鼓, 奏樂而來, 坐此巖, 讀臚腫經, 則我頭痛甚, 聞郎君善射, 願除吾害, 作帝建許諾.”

43) 崔致遠이 眞聖女王 8~11년 사이에 당나라에 보낸 3개의 表文에서 확인된다(『孤雲集』, 「新羅 眞正表」, 「讓位表」, 「起居表」).

44) 거타지가 곡도에 남겨지기 전에는 그의 신궁에 대한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는다. 서해약의 청이 있는 뒤에야 활쏘기가 장기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신궁에 비중을 두었다면 궁수 50명의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을 바다에 띄울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는 작제건 기사와의 관계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작제건은 태어나기 전부터 신궁임을 표징하는 활과 화살을 남겨주기 때문이다.

신라의 배를 두 용이 받들고 오는 것을 보고 이를 황제에게 아뢰었다. 황제가 말하기를, ‘신라의 사신은 반드시 비범한 인물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여러 신하의 윗자리에 앉히고 금과 비단을 후하게 내렸다”<sup>46)</sup>는 대목이 그러한 점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이는 龍=神의 사상에서 배태된 신라의 호국 호법룡사상을 정치하게 드러내줌으로써 중국과의 민족적·문화적 우위성 곧, 대당 차원에서의 전략적 우위성을 피력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내재된 힘을 축적하는 동시에 적극적 방어 의지를 구축하려는 『삼국유사』 찬자의 의도된 글쓰기가 읽히는 까닭이다.

신라의 용은 호국용으로서 오래전부터 국가를 진호해온 신으로 표징되어왔다. 그리하여 『삼국유사』에서도 용신에 대한 단서는 곳곳에서 보이는데 신분과 위치, 장소와 시간, 사건과 정황, 건물과 池塘 등을 초월해서 기재되었다. 龍孫,<sup>47)</sup> 護國龍, 龍宮行,<sup>48)</sup> 攬掠,<sup>49)</sup> 龍神,<sup>50)</sup> 城重築,<sup>51)</sup> 寺刹 創建,<sup>52)</sup> 經典 撰述,<sup>53)</sup> 毒龍<sup>54)</sup> 등의 기사에서 讚詩,<sup>55)</sup> 國名,<sup>56)</sup> 池名,<sup>57)</sup> 巖名,<sup>58)</sup> 龍顏,<sup>59)</sup> 宮闕,<sup>60)</sup> 寺刹名,<sup>61)</sup> 受戒<sup>62)</sup> 등에까지 다양한 담론의 형태로 전개되었다.<sup>63)</sup> 이중 호국용에 관련된 조목은 ‘문무왕 법민’조, ‘만파식적’조, ‘원성대왕’조, ‘처용랑 망해사’조,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조, ‘가섭불연좌식’조,<sup>64)</sup> ‘皇龍寺九層塔’조, ‘보양이목’조, ‘선도성모수희불사’조, ‘慈藏定律’조 등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조, ‘가섭불연좌식’조, ‘황룡사구층탑’조, ‘자장정물’조를 제외하면 모두 바다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용이 水神(海神)으로 존송되어서도 그렇겠지만 삼면이 바다인 지형상의 중요성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경우 당과의 교통이 주로 바다였음을 감안한다면 용과의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45) 『三國遺事』 권2, 「紀異」 2, ‘眞聖女大王 居陀知’조, “仍命二龍捧居陀赴及使缸, 仍護其缸入於唐.”

46) 『三國遺事』 권2, 「紀異」 2, ‘眞聖女大王 居陀知’조, “境唐人見新羅缸有二龍負之, 具事上聞, 帝曰, 新羅之使必非常人, 賜宴坐於羣臣之上, 厚以金帛遺之.”

47) ‘新羅始祖 赫居世’조, ‘第四 脫解王’조, ‘武王’조.

48) ‘文武王 法敏’조, ‘明神印’조.

49) ‘水路夫人’조.

50) ‘眞聖女大王 居陀知’조, ‘處容郎 望海寺’조, ‘前後所將舍利’조.

51) ‘寶藏奉老 普德移庵’조.

52) ‘興輪寺壁畫普賢’조, ‘洛山 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조, ‘寶壤梨木’조, ‘慈藏定律’조, ‘關東楓岳鉢淵藏石記’조, ‘明神印’조.

53) ‘元曉不羈’조.

54) ‘魚山佛影’조(惡龍 포함), ‘惠通降龍’조(蛟龍 포함).

55) ‘蛇福不言’조, ‘眞表傳簡’조, ‘寶藏奉老 普德移庵’조.

56) ‘第四 脫解王’조.

57) ‘萬波息笛’조, ‘朗智乘雲 普賢樹’조, ‘慈藏定律’조.

58) ‘南扶餘 前百濟 北扶餘’조.

59) ‘駕洛國記’조.

60) ‘阿道基羅’조.

61) ‘天龍寺’조(天龍寺), ‘新羅始祖 赫居世’조, ‘天賜玉帶’조, ‘文武王 法敏’조, ‘元聖大王’조, ‘景明王’조, ‘景哀王’조, ‘阿道基羅’조, ‘迦葉佛宴坐石’조, ‘皇龍寺丈六’조, ‘皇龍寺九層塔’조,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조, ‘前後所將舍利’조, ‘圓光西學’조, ‘慈藏定律’조, ‘寶瑜珈海華嚴’조, ‘廣德嚴莊’조, ‘正秀師救水女’조(이상 皇龍寺), ‘前後所將舍利’조(海龍王寺).

62) ‘魚山佛影’조.

63) 동일한 조목이라 하더라도 용에 관한 다른 기사가 있으면 별도로 분류하였음을 밝혀둔다.

64) ‘迦葉佛宴坐石’조에 진흥왕 14년에 神宮을 지으려다 黃龍이 나타나 皇龍寺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皇龍寺는 護國의 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이므로 護國龍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호국옹과 관련하여 호국을 직접 언급한 조목은 ‘문무왕 법민’조,<sup>65)</sup> ‘만파식적’조,<sup>66)</sup> ‘원성대왕’조<sup>67)</sup>와 ‘황룡사구충탑’조<sup>68)</sup>이다. 황룡사구충탑의 호국 또는 진호 사상은 이미 수없이 언급된 바 있다. 중국 池龍의 아들이 신라의 호법옹으로 머문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것이 진호하고 있으니 주위의 여러 나라가 스스로 항복해 올 것이라는 예조 또한 신비롭기 때문이다. 특히 첫째 층에 일본, 둘째 층에 중국을<sup>69)</sup> 겨냥하고 있음에 그 의도가 남다르다. ‘문무왕 법민’조나 ‘만파식적’조는 문무왕이 친히 호국대룡이 되어 신라를 진호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피력한 것이어서 바닷길 수호의 진수로 여겨진다. ‘원성대왕’조는 당으로부터 신라 진호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 역시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도성모수희불사’조의 기사 또한 예사롭지 않다. 바닷길 수호를 직접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本朝의 屈弗池 용이 황제의 꿈에 나타나 靈鷲山에 藥師道場을 길 이 열어 바닷길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그 일이 또한 이와 같다.”<sup>70)</sup>고 언지함으로써 용이 직접 海途 수호를 밝히고 있어서다. 이는 『삼국유사』가 호국호법룡사상이 주는 언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용의 거처인 바다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통한다. ‘거타지’ 서사에서 ‘용’과 ‘바다’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 조목명에 진성여왕을 병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흥’ 등 서사에서는 진성여왕과의 관련성이 깊다. 하지만 ‘거타지’ 서사에서는 王代와 양패의 신분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지금까지 진성여왕에 대한 역사적 시선은 분명한 대조로 이어졌다. 무능과 음란, 실정과 禪讓의 측면과 대비해 시국적 또는 시대적 지배체제의 빈약과 정치의 논리적 모순에서 빚어진 회생양으로 비춰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두 시선은 앞으로도 역사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최치원의 시각과 일연선사의 시선이 그러한 점을 부추겨서다. 진성여왕을 정통성을 가진 왕위 계승자였으며 왕으로서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왕으로 묘사<sup>71)</sup>한 최치원의 언술과 실정과 퇴위에도 불구하고 진성여왕을 대왕으로 칭한 일연선사의 언지가 시각과 시선에서 일치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성여왕의 악정과 폐단은 신라하대의 적폐임에는 분명하다.<sup>72)</sup> 그리고 그로 인해 당과의 소통 또한 불편했을 것이다. “도적이 그물을 빠져나가서 흉악하게 구는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바다에 배 한 척도 띄울 수 없게 되고 육지에 수레 한 대도 보낼 수 없게 된 나머지, 일찌감치 관원을 파견하여 이렇게 절박한 사정을 아뢰게 하지도 못한 채, 齊橫島 외곽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분노의 바람결에 혼을 날리거나, 秦帝橋 주변에서 조회하러 가는 물결에 쓸개를 씻어 충성을 맹세하고 돌아오게

65) 『三國遺事』 권2, 「紀異」 2, 「文武王 法敏」조, “王平時常謂智義法師曰,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奉佛法守護邦家.”

66) 『三國遺事』 권2, 「紀異」 2, 「萬波息笛」조, “命日官金春質[一作春日]占之, 曰, 聖考今爲海龍, 鎮護三韓.”

67) 『三國遺事』 권2, 「紀異」 2, 「元聖大王」조, “呪我夫二龍及芬皇寺井等三龍, 變爲小魚, 筒貯而收. 願陛下勅二人, 留我夫等護國龍也.”

68) 『三國遺事』 권3, 「塔像」 4, 「皇龍寺九層塔」조.

69) 『三國遺事』 권3, 「塔像」 4, 「皇龍寺九層塔」조, “若龍宮南皇龍寺建九層塔, 則隣國之災可鎮.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狚, 第九層獺狼.”

70) 『三國遺事』 권5, 「感通」 7, 「仙桃聖母隨喜佛事」조, “每春秋二季之十日, 叢會善男善女, 廣爲一切含靈, 設占察法會, 以爲恒規[李朝屈弗池龍, 託夢於帝, 請於靈鷲山, 長開藥師道場, □平海途, 其事亦同.]”

71) 김선주, 「신라말 진성왕에 대한 최치원의 이중적 인식과 그 의미」, 『여성과 역사』 34, 한국여성사학회, 2021, 133쪽 참조.

72) 진성여왕은 최치원이 “惡 중의 惡이 없는 곳이 없고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벌처럼 즐비하였다.”고 토로할 정도로 치리 기간 내내 악정에 농단까지 시달렸다(崔致遠, 「海印寺妙吉祥塔誌」, “惡中惡者無處無也餓殍戰骸原野星排”).

할 수밖에 없습니다.”<sup>73)</sup>는 술회는 그에 대한 표증이다. 遣唐使 金處誨가 바다에서 익사 당하는 사건<sup>74)</sup>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정황은 고려조에서도 경험했을 시국·시대적 병폐였을 것이다. 무신정권의 학정과 몽고침탈의 잔악상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들어 『삼국유사』에 대한 역사학계의 고구는 이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삼국유사』의 편찬과 관련하여 拾遺의 차원이 아닌 대단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다.<sup>75)</sup> 이러한 의식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고려를 再造하려는 역사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 『삼국유사』 찬술<sup>76)</sup>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대당전략 역시 이러한 입장과 의도에서 멀지 않다. 몽고의 잔혹무비한 도륙과 파괴, 무신정권의 부정과 폭압과 무능의 시대로 대변되는 13세기 고려의 국사로서 시대 상황적 고충과 치욕을 통감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대당전략은 그러한 의도에 대한 상징적 차원에서의 전제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唐은 총 29번(연호 생략) 정도 언급되는데 이에 대한 기사는 유학, 구도, 불경에서부터 황제에 대한 조빙, 청병 및 출병, 헌가, 헌상, 창사 등과 사신, 구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와 달리 당에 대해 우위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조목도 있어 주목된다. ‘선덕왕지기삼사’조, ‘태조춘추공’조, ‘문무왕 법민’조, ‘원성대왕’조,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가락국기’조, ‘김현감호’조, ‘현유가해화엄’조, ‘명랑신인’조, ‘혜현구정’조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경우는 용의 호위를 받으며 당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표징하는 방향이 다르다. 용이 호위하는 장면은 ‘제사 탈해왕’조에서도 보이므로<sup>77)</sup> 신성성과 신이성이 함축된 의미라 하겠다. 그런데 ‘거타지’의 경우 호위뿐만 아니라 ‘용이 거타를 받든다’(仍命二龍捧居陟趣及使舡 仍護其舡入於唐)는 점에서 그러한 의미는 배가된다. 이는 몽고 참사의 고충과 치욕을, 저들의 감시가 극심하므로 인해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심사를 대당전략을 구축함으로써 치유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리하여 외적으로는 몽고의 환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족자긍심을 절실히 피력하고, 내적으로는 민족자주주의에 의한 주권회복을 간절히 강구하는 방법을 모색<sup>78)</sup>하는 차원에서의 등재였다.

그러므로 ‘거타지’와 서해 용신과 당 황제의 존숭 기사는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해약에 대해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해약은 스스로 보이고 있듯이 용으로 서해신이다. 곧 서해를 수호하는 해신이다. ‘처용랑 망해사’조의 동해용과 같은 직능을 수행해야 하는 신이다. 그런데 해신인 약 또는 용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다가온다. 이들의 부재나 위기는 국망으로 이어지거나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연오랑 세오녀’조에서 연오와 세오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이나, ‘원성대왕’조의 東池, 靑池, 芬皇寺의 용을 당 사신이 拉去함으로 인해 호국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나, 헌강왕 때 국망을 예조하는 단초 등은 그러한 취지의 예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타지’ 서사에서 서해약의 부재는 신라가 위기에

73) 崔致遠, 『孤雲集』 권1, 「謝嗣位表」, “諸盜多乖, 磨鉛而盤錯未除, 漏網而兇狂益甚, 至使水無芥船, 陸絕蓬輪, 不獲早遣下僚, 仰陳忠懇, 齊橫島外, 馳魂解慍之風, 秦帝橋邊, 漚瞻朝宗之浪.”

74)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11, 「眞聖王」 7년, “遣兵部侍郎金處誨如唐, 納旌節, 沒於海.”

75) 주보돈, 「『삼국유사』를 통해본 일연의 역사 인식」, 『嶺南學』 63,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7, 133쪽 참조.

76) 채상식, 「『삼국유사』의 찬술 기반」, 『韓國史學史學報』 35, 한국사학사학회, 2017, 49쪽.

77) 『三國遺事』 권2, 「紀異」 1, 「第四 脫解王」조.

78) 이완형, 앞의 논문, 2014, 225쪽.

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 존망 위기 기사의 경우 반드시 그 탈출 해법 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연오랑 세오녀’조에서는 세오의 細絢가, ‘원성대왕’조에서는 두 여자의 주청이, ‘처용랑 망해사’조에서는 처용이 각각 그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거타지의 ‘사미 射死’ 역시 그러한 해법 요소 중의 하나다.

그런데 여기서 ‘처용랑 망해사’조의 용과 ‘거타지’ 서사의 용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처용랑 망해사’조의 용이 雲霧로 계시하고 처용을 상경시켜 국망을 예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국을 초래한 반면, ‘거타지’ 서사의 용은 거타의 도움을 받아 危害 요소인 사미를 제거하고 당 황제의 존숭까지 받게 함으로써 해상 방어와 민족적 우위를 동시에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사는 일연선사의 전략과 맞물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진성여대왕의 칭호와 함께 「기이」에 편제까지 하였을 것이다. 옛것을 기억시켜 당대의 문제를 치유하려는 의도가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에서 읽히는 이유다.

#### IV. 맺음말

‘진성여대왕 거타지조’는 서사와 인물의 두 층위가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육지와 바다를 통해 그 상징성을 배가시키는 틀로 조직되어 있다. ‘위홍’ 등과 ‘거타지’의 두 인물 층위가 ‘권력 남용 경계’와 ‘민족적 우위, 해상 방어’라는 서사 층위와 중의적인 망을 형성해서다. 아울러 ‘위홍’ 등의 권력 남용은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정사 문란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거타지’로 대변되는 민족적 우위와 해상 방어는 바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어서다. 그리고 여기에 공통모티프이자 핵심 기제로 다라니가 작용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바다는 신이와 비범의 해결 공간으로 찬술되었다. 그리하여 神格의 進路, 英雄豪傑의 登龍門, 靈應의 移動路, 佛物의 異跡路, 神龍의 造化場, 建國의 場所性, 軍事 進出路, 國亡의 兆朕, 敵軍 退治路, 國家守護, 神物의 誘惑, 佛道の 進路 등 다양한 기능의 자료적 가치를 동반한다. 그러면서 삼국유사의 바다는 첫 번째로 우위와 방어라는 중의적 잣대로 표징 된다. 전자는 대당·대왜의 전략적 차원에서 민족적 우위성 고양으로 기능하고, 후자는 적극적 방어 전략 기제로서 작용한다. 두 번째는 정치적 경계 및 국망 예조로서의 상징이다. 세 번째는 신성적 수호로서의 대당전략적 표상이다. 특히 이는 ‘거타지’ 서사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여기에서는 호국호법용사상이 주는 언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용의 거처인 바다를 주시한다. 그리하여 ‘거타지’ 서사의 바다에 함의된 의미는 다음의 네 가지 요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신라에는 호국호법용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중국과의 신위적 우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공간적 기능이다. 둘째, 다라니에 대한 적폐성과 그에 대응하지 않을 때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강한 경계를 내포하는 공간적 기능이다. 셋째, 당나라 황제까지도 칭송하는 거타지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신라에 많다는 사실을 피력함으로써 군사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공간적 기능이다. 넷째, 용이 수호하는 바다를 통한 대당전략의 우수성을 확보함으로써 몽고에 대한 경계까지도 암시하는 공간적 기능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통모티프이자 핵심 기제인 다라니의 기능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다라니는 사전 신호로 ‘위홍’ 등 서사와 ‘거타지’ 서사에 공통적으로 개입하면서 동시에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는 단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홍’ 등 서사에서는 국인의 다라니로 인해 왕거인 투옥 사건이 발생하고 천의에 의한 방면으로 해결되는 데 반해 ‘거타지’ 서사의 경우는 사미의 다라니로 인해 서해약의 자손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거타지에 의해 오히려 사미가 사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다. 그리고 그것은 다라니의 남용과 악용의 또 다른 경계와 맞물린다. 국인의 다라니로 인해 왕거인이 투옥되는 누명사건이 발생하므로 이는 다라니의 효험성과 동시에 남용의 사례로 읽힌다. 반면에 사미의 다라니는 서해신에게 해약을 가함으로써 해상 방어를 위협하는 동시에 자신을 죽게 만드는 악용의 사례를 시사한다. 그것은 ‘해통항룡’조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통항룡’조의 경우 불교적 다라니의 예시이므로 그 정통성이 인정되어 神僧들의 이적을 기재한 「신주」편에 수록한 반면, ‘진성여대왕 거타지’의 경우는 왕과의 관련성에서 「기이」편에 편제됨과 동시에 다라니의 남용과 악용을 경계하기 위해 「기이」편에 수록한 것이다. 이는 다라니의 남용과 악용의 사례를 피력하고 거타지를 통해 대당전략의 우위성을 확보함으로써 몽고의 침입으로 인한 초유의 위기의식과 절비의 잔혹성에서 벗어나려는 절대적 경각심과 절치의 방어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로 읽힌다.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의 편제는 그러한 의도의 찬술이었으며 이를 위해 조목명에 거타지를 병기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三國遺事』, 『三國史記』, 『益齋亂藁』, 『佛說長阿含經』, 『孤雲集』

김선주, 「신라말 진성왕에 대한 최치원의 이중적 인식과 그 의미」, 『여성과 역사』 34, 한국여성사학회, 2021.

김승호, 「해양공간의 설화적 수용과 의미 - 三國遺事を 중심으로 -」, 『한국문학연구』 37, 한국문학연구소, 2009.

김수연, 「高麗時代 密敎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金淵敏, 「新羅 密敎思想史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혜정, 「텍스트 이해에서 의미 구성의 층위와 인지의 상호 작용」,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002.

남희숙, 「조선후기 王室의 佛敎信仰과 佛書刊行 -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간행을 중심으로 -」, 『國史館論叢』 99, 國史編纂委員會, 2002.

柳玪善, 「沈淸傳의 根源說話와 背景思想」, 『용봉논총』 11,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박유미, 「〈진성여대왕거타지〉 설화에 나타난 사회구조와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61, 한민족어문학회, 2012.

박철완, 「거타지설화의 상징성 고찰」, 『청람어문학』 1, 청람어문학회, 1998.

선상균, 「다라니 의미의 체계화 과정」, 『밀교세계』 1, 위덕대학교, 2006.

송화섭, 「『삼국전』 인당수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신선혜, 「『삼국유사』 「진성여대왕 거타지」조 해석의 새로운 시각」, 『불교연구』 51, 한국불교연구원, 2019.

엄태웅, 「『삼국유사』 「기이」편과 바다」, 『동북아시아문화연구』 4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呂聖九, 「삼국유사 鵠島 居陀知 설화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試論」, 『한국학논총』 46, 한국학연구소, 2016.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尹明喆, 「新羅下代の 海洋活動研究」, 『國史館論叢』 91, 國史編纂委員會, 2000.

윤용혁, 「몽골전란과 『삼국유사』의 일연 - 『삼국유사』를 통해서 본 몽골전란 -」, 『한국중세사연구』 69, 한국중세사학회, 2022.

이완형, 「水路夫人'條 歌謠 研究」, 『韓國言語文學』 32, 韓國言語文學會, 1994.

이완형, 「處容郎 望海寺'조의 서사적 이해와 처용가의 기능」, 『어문학』 68, 한국어문학회, 1999.

이완형, 「삼국유사에 나타난 적극적 방어 의지와 그 구현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4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이완형, 「〈혜성가〉와 적극적 방어로서의 연술 전략」, 『동양학』 6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6.

張德順, 「沈淸傳 研究」,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93.

전기웅, 「『삼국유사』 소재 '眞聖女大王居陀知'조 설화의 검토」, 『한국민족문화』 38,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정연식, 「거타지 설화의 새로운 해석」, 『東方學志』 160, 국학연구원, 2012.

정연식, 「작제건 설화의 새로운 해석」, 『한국사연구』 158, 한국사연구회, 2012.

주보돈, 「『삼국유사』를 통해본 일연의 역사 인식」, 『嶺南學』 63,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7.

채상식, 「『삼국유사』의 찬술 기반」, 『韓國史學史學報』 35, 한국사학사학회, 2017.

최재남, 「한국 고전문학과 바다에 대한 인식」,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 이 논문은 2022년 6월 9일에 투고되어,  
2022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0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 Abstract ■

## Sea Meaning and Strategy Toward the Tang Dynasty in Tale of 'Jinseongyeodaewang Geotaji'

Lee, WanHyung\*

This thesis originated from revealing the fact that the 'Jinseongyeodaewang Geotaji' was described in terms of strategy toward the Tang Dynasty's superior strategy. It appears as a sacred guardian, which is shown in the use of the sea as a mechanism,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meaning given by a dragon ideal of defense the fatherland and Buddhism(護國護法龍思想). It is identified in the sense of implication to the sea. First, the fact that there is a dragon of defense the fatherland and Buddhism(護國護法龍) in Silla reveals the superiority of shows the superiority that god protects compared to China. Second, it exemplifies the cases of the efficacy, abuse and abuse of darani and acts as a space that implies a strong boundary that the country is at stake when it does not respond to it. Third, it shows military superiority by expressing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outstanding figures such as Geotaji who praise even the Tang Dynasty emperor. Fourth, it implies the boundary of Mongolia by securing the excellence of Strategy toward the Tang Dynasty(對唐戰略) through the sea protected by dragons.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reveal absolute alertness and absolute defense consciousness to escape from the crisis of colostrum and incomparable cruelty caused by the Mongol invasion.

**[Keywords]** Ilyeon, Samgukyusa, Geotaji, Sea, Dharani, Strategy toward the Tang Dynasty

---

\* Lectur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